

JY 공식복귀 언제? 삼성 80주년·주총 겹친 내달 하순 유력

(3월 22일)

(3월 23일)

석방 후 공식일정 없이 경영복귀 대국민 선언 준비 관측도 제기 투명경영 활동으로 신뢰 회복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석방 이후 공식 일정 없이 경영 복귀를 위한 구상에 집중하고 있다. 헌업 고위 임원들에게 경영 현안을 보고받는 등 경영일선 복귀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항소심 판결 논란에 차명재산 문제까지 불거지 상황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사 참석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 추측된다.

세계는 내달 열리는 삼성 80주년 행사와 주주총회가 이 부회장의 첫 공식일정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12일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선대회장의 탄생일이다. 내달 22일은 이병철 회장이 '삼성상회(삼성물산)'라는 간판을 내걸고 사업을 시작한 지 꼭 80주년이 되는 날이다.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이견희 회장의 와병과 이 부회장 구속 이후 총수와 관련된 모든 행사를 간소화했다.

그러나 올해는 80주년이라는 이 부회장이 창립기념식에 참석해 '제3의 장엄'을 선언하며 삼성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자신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 글로벌 일류기업에서 일하는 행운을 누렸다면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 보답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살아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이 부회장이 80주년 행사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준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삼성전자의 주주총회는 다음달 23일 예정돼 있다. 삼성전자 등기이사직을 유지 중인 이 부회장이 늦어도 이날에는 외부 활동을 공식화하지 않겠냐는 게 재계의 전망이다.

특히 이 부회장은 이날 열리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 계획을 구체화하고 주주환원, 사회공헌 등을 발표해 경영 투명성 회복에 나설 것이라 분석된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7일 평택 2라인 투자규모를 결정하는 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 구체적인 투자 규모는 이날 위원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투자 규모는 주주총회 개최일에 앞서 열리는 이사회에서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평택 2라인은 지난해 7월 가동에 돌입한 평택 1라인과 비슷한 30조원의 투자가 집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자리 역시 평택 1라인 건설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만 1만2000여명에 수준이었던 점과

협력사들에 대한 낙수 효과까지 더하면 2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봤다.

신뢰회복을 위한 투명경영 활동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등이 강조되는 최근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글로벌 사외이사 선임으로 경영 투명성 회복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주주총회는 특히 주주환원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상 첫 주식 액면분할의 자리다. 삼성전자는 액면분할을 통해 주당 가격 250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으로 내려가게 된다. 이를 통해 국민주로 거듭나게 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액면분할을 실시할 경우 더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할 기회를 갖게 되고 올해부터 대폭 증대되는 배당 혜택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자 저변 확대와 유동성 증대 효과 등 주식 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가치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icindun@metroseoul.co.kr

LGU+ 중소협력사 납품대금 현금 조기지급 “겨울여행의 추억, 청량리역서 ‘V30’ 체험하세요”

총 80억 원... 안정적 자금유동 지원

LG유플러스가 납품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중소협력사와의 상생협력에 적극 나선다.

LG유플러스는 설을 맞아 2000여 개 중소협력사에 약 80억원의 납품대금을 100% 현금으로 조기 지급해 안정적인 자금 유동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설·추석 명절 전 납품대금 조기 집행을 통해 중소협력사와의 상생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고 있다. 납품대금 조기집행 액수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누적액 1500억원을 넘어섰다.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받을 협력사들은 LG유플러스와 구매 계약을 맺고 무선 중계기 및 무선 네트워크 장비 납품 등과 네트워크 공사, IT 개발 및 운영 등을 담당하는 200여 업체들이다.

LG유플러스는 중소협력업체들을 돕

기 위해 설과 추석 전엔 정기대금 지급일 외에 추가로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연도 설엔 14일 지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중소협력사들이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IBK기업은행과 연계한 '500억원의 상생협력펀드', '200억원 직접 자금 대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중소협력사들이 저렴한 면서도 효율이 우수한 통신장비나 솔루션 개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심사절차를 거쳐 채택된 아이디어 제품에 대해 LG유플러스가 일정 물량 이상의 구매를 보장해주는 '협력사 제안의 날'을 진행하고 있다.

LG유플러스를 통해 지급되는 자금은 중소협력사들의 ▲신제품 생산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험·측정 설비 투자 ▲협력사의 긴급 운영 자금 및 연구개발 비용 등으로 쓰이고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LG전자, 64㎡ 규모 체험존 설치 카메라 기능·촬영 팁 등 중점소개

LG전자는 11일 서울 청량리역에 64㎡ 규모의 LG V30 체험존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오는 25일까지 운영하는 이번 체험존에서 ▲6인치 대 스마트폰 중 가장 얇고 가벼운 디자인 ▲영화처럼 촬영할 수 있는 시네 비디오 ▲눈에 보이는 대로 자연스러운 저왜곡 광각카메라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 LG 페이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

특히 LG전자는 겨울여행의 추억을 잘 담을 수 있도록 차별화된 카메라 기능과 사진 촬영시 알아두면 좋은 팁을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LG V30는 스마트폰 중 처음으로 카메라에 글라스 소재의 크리스탈 클리어 렌즈를 적용했다. 이 렌즈는 기존 플라스틱 렌즈보다 빛 투과율이 높아 피사체의 디테일까지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으며, 보



/LG전자

다 정확한 색감과 사실적인 질감을 표현해 준다.

하면 가장자리 왜곡을 줄인 저왜곡 광각 렌즈는 사람 시야각과 비슷한 120도 화각(畫角)으로 자연스러운 풍경을 촬영할 수 있게 한다.

LG V30의 무게는 158g, 두께는 7.3m

m에 불과해 대화면 스마트폰은 크고 무겁다는 편견을 깬다.

LG전자 안병덕 모바일마케팅담당은 "정갈함과 역동성을 느낄 수 있는 겨울 여행에서 누구나 손쉽게 전문가처럼 찍을 수 있는 LG V30의 감점을 적극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삼성전자 중동 최대 '터키 공조박람회' 참가

삼성전자는 7일부터 10일(현지시간)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터키 공조 박람회(ISK-SODEX)'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격년으로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47개국 1300여개 업체가 참가하고 약 8만명이 방문하는 중동 최대 규모 공조 전시회다.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무풍 냉방' 기술을 기존 가정용에서 1Way·4Way·360 카세트 등 상업용 제품까지 확대 적용한 '무풍에어컨' 풀 라인업을 선보이고 상반기에 순차적으로 중동 시장에 선보였다.

특히 원형 시스템 에어컨 '360 카세트'는 어느 공간이나 조화롭게 어울리는 원형 디자인과 무풍 기술을 이용해 찬 바람이 직접 닿는 것을 최소화하고 냉기가 균일하게 퍼지며 에너지 효율도 높다.

또한 삼성전자는 대용량 시스템에어컨 실외기 '30HP(마력) DVM 시리즈'의 신제품도 전시했다. 공냉식 'DVM S 30HP'는 외부 공기를 이용해 열교환기를 식히며 기존 대비 설치 면적을 최대 40%까



중동 현지 거래선들이 터키 공조 박람회 삼성전자 부스에서 공조 솔루션 제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삼성전자

지 줄일 수 있다.

이 제품들은 동시 냉난방이 가능하며, 액체 냉매와 가스 냉매를 혼합 주입해 압축하는 고효율 냉매 분사 방식 '플래시 인젝션' 기술을 적용해 난방 성능을 한층 강화했다. 이 밖에도 소용량으로 가정이나 소형 사업장에 적합한 'DVM S Eco HR'와 기존 모델 대비 크기가 27% 작아져 가정과 호텔에 설치가 용이한 'DVM용 신규 Duct 실내기' 등 다양한 공조 솔루션을 선보였다.

/정은미 기자

LG전자 '씽큐' 적용한 TV·냉장고·세탁기로 유럽시장 공략

LG전자가 인공지능(AI) '씽큐(Thin Q)'를 적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앞세워 유럽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LG전자는 현지시간 8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칸느에 있는 팔레 데 페스티발에서 'LG 이노페스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LG 씽큐 존'을 구성해 독자 개발한 인공지능 플랫폼 '딥씽큐'를 비롯해 외부의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가전을 공개했다.

'LG 씽큐 존'에는 거실, 세탁실, 주방 등의 생활 공간을 연출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제품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이 인공지능 제품들과 함께 하는 일상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방문객들은 거실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올레드 TV의 음성인식 기능을 활용해 화면모드 변경, 채널 변경, 볼륨 조절 등 다양한 TV 기능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다.



현지 거래선 관계자들이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올레드 TV의 음성인식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LG전자

이외에도 LG전자는 트롬 트윈워시, 트롬 건조기, 노크온 매직스페이스 냉장고, 올레드 TV 등 올해 유럽에 판매할 프리미엄 제품들을 전시했다. 또 고효율, 고성능, 저소음 등에 탁월한 인버터 기술

도 집중적으로 알렸다.

'LG 이노페스트'는 LG전자 고유의 지역 밀착형 신제품 발표회로 주요 거래선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과 추제의 장이다.

/정은미 기자